

## 조코비치 “요키치, 세르비아의 자랑”



▲ NBA LA레이커스와의 경기 중 수비를 제치고 드리블하는 니콜라 요키치 사진=kget.com

조코비치가 요키치를 응원했다.

지난 30일 농구전문매체 ‘루키’에 따르면 테니스 슈퍼스타 노박 조코비치는 전날 ‘Tennis Channel’과의 인터뷰에서 세르비아 출신이자 덴버 너게츠의 에이스 니콜라 요키치의 우승을 바란다고 말했다.

조코비치는 “세계 최고의 농구 선수 요키치를 열렬히 응원하고 있다. 그는 정말 놀라운 선수이고 세르비아의 자랑이다. 우리는 요키치가 자신의 첫 파이널 무대에서 우승하길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조코비치는 역대 최고의 테니스 선수 중 한 명으로 불린다. 그는 라파엘 나달, 로저 페더러와 함께 21세기 남자 테니스계의 전성기를 이끌며 메이저 대회 우승 22회, 준우승 11회 등 압도적인 커리어를 쌓았다. 이에 조코비치는 세르비아의 스포츠 영웅으로 거듭났다.

이런 조코비치의 발자취를 뒤따르고 있는 선수가 있다. 바로 요키치다. 요키치는 2014 NBA 신인 드래프트 전체 41순위로 덴버 유니폼을 입었다. 2라운드 출신이기에 그를 향한 기대감은 그리 크지 않았다. 하지만 요키치는 특유의 다재다능함과 센스를 앞세워 NBA를 지배하고 팀을 창단 첫 파이널 무대로 진출시켰다.

조코비치는 “요키치는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스포츠, 그리고 리그 중 하나에 입성해 3년 동안 지배력을 과시했다. 그가 자랑스럽다.” 말했다. 요키치의 덴버가 NBA파이널에서 마이애미를 제압하고 정상에 오를지 주목된다.

## 레알 마드리드, 2년 연속 포브스 ‘최고 가치 프로축구팀’

전 세계 프로축구 클럽 가운데 가치가 가장 높은 팀은 레알 마드리드(스페인)로 집계됐다.

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제 전문지 포브스는 이날 세계에서 가장 가치 있는 축구팀 베스트 30 순위에서 레알 마드리드의 가치를 60억 7천만 달러로 평가하며 1위에 올랐다.

레알 마드리드는 이 조사에서 2년 연속 1위를 지켰다. 지난해 레알 마드리드의 구단 가치는 51억 달러로 평가됐다.

올해 2위는 60억 달러의 가치를 평가받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이하 맨유·잉글랜드)다. 맨유는 2007년부터 2012년까지 6년 연속 이 부문 1위를 지켰고, 2017년과 2018년에도 1위였다. 3위는 55억 1천만 달러의 FC바르셀로나다. 손흥민이 속한 토트넘은 28억 달러로 9위에 올랐다.

지난해보다 가장 큰 폭의 상승을 보인 팀은 뉴캐슬 유나이티드(잉글랜드)로 지난해보다 51% 오른 7억9천400만 달러의 가치로 22위에 자리했다. 뉴캐슬은



▲ 챔피언스리그 2021-2022 시즌 우승을 차지한 뒤 트로피를 들고 기뻐하고 있는 레알 마드리드 선수들. 사진=theanalyst.com

2021년 10월 사우디아라비아 국부펀드(PIF)가 주도하는 컨소시엄에 인수돼 ‘오일머니’로 무장. 성적 역시 2021-2022시즌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11위에서 2022-2023시즌 4위로 경종 뛰었다.

상위 10위 내에는 잉글랜드 클럽이 6개로 가장 많았고, 스페인 클럽이 2개, 프랑스와 독일이 1개씩 진입했다. 이탈리아 세리에A 구단으로는 유벤투스가 21억 6천만 달러로 11위에 오른 것이 가장 높은 순위다.

## 잭 니클라우스 “LIV선수들 더이상 골프의 일부로 생각하지 않아”

잭 니클라우스(미국)가 “LIV골프 선수들은 더이상 골프의 한 부분으로 여기지 않는다.”고 밝혔다.

6월 1일 ~ 4일 오크하이오주 더블린의 뮤어필드 빌리지 GC(파72·7571야드)에서 열린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메모리얼 토너먼트(총상금 2,000만 달러)를 주최한 니클라우스는 대회를 앞두고 지난 30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여기에 현존 세계 최고선수들이 참가했다.”고 만족스러워 했다.

1966년 스코틀랜드 뮤어필드에서 열린 디 오픈에서 처음 우승하며 그랜드슬램을 달성한 니클라우스는 1974년 고향에 뮤어필드를 담은 골프장을 완공한 후 2년 뒤인 1976년부터 메모리얼 토너먼트를 개최해 왔다. 타이거 우즈가 여기서 5승을 거둬 최다승 기록을 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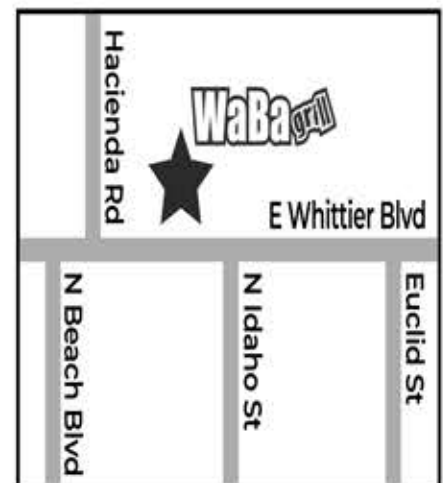
고 있고 한국선수 중에는 2007년 최경주가 우승했다.

니클라우스는 이번 대회에 PGA 챔피언십 우승자 브룩스 켈카(미국), 지난해 디 오픈 우승자 캐머런 스미스(호주)가 출전하지 못한 게 실망스럽지 않느냐는 질문을 받고 “나는 그들을 더이상 골프의 일부로 여기지 않는다.”며 “이건 PGA투어 대회이고, PGA투어에서 자격을 갖춘 모든 선수들이 나왔다. 떠난 선수들에 대해선 이야기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니클라우스는 “1962년 LA오픈에서 50위를 차지해 33.33달러를 상금으로 받았다. 우리 시대엔 얼마나 골프를 잘 치는가에 집중했고, 돈은 보상으로 따라왔다.”며 돈을 목적으로 골프를 치는 요즘 선수들을 예뻐라 비판했다.

# WaBa grill

La Habra Eat Smart, Be Healthy!



# 562.266.0011

<https://order.wabagrill.com/store/5966>

1351 W. Whittier Blvd. La Habra, CA 90631